

with ♥ DunSan 희망을 나눕니다!

발행인 고내봉 / 기획·편집 김기현 / 발행처 둔산종합사회복지관 / www.dswelfare.or.kr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3동 1812(우 302-120) 전화 042-482-2032 / 전송 042-482-3995

우리가 눈발이라면

| 안 도 현 |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쭉뚝쭉뚝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덮는
새살이 되자.



통권 43 호

CONTENTS

| 함께 나누는 글 |



세 가지의 눈

우리에게는 세 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보는 눈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보는 눈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알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나갈 때 건강한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를
보는 눈입니다.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전체가 성장하지 않는 한
개인의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나를 보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속한 사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와 힘을
기를 수 있으며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02 함께 나누는 글

03 사회복지칼럼

04~5 복지관 사업안내
2010년 사랑의 가족만들기

06~7 2010년 희망문산캠페인
행복을 부르는 사소한 습관

08 실습생 수기
사회복지사 실습을 돌아보며

09 복지관 이모저모
9월~12월 각 사업별 행사사진

12 사랑나눔미
자원봉사자 명단(2010. 9~12)

13 희망나눔미
후원자 명단(2010. 9~12 : 기금·결연 후원자)

14 신입직원인사
송혜림 / 이수정 사회복지사

15 제2차 추경예산 총괄표 / 짧은글, 긴여운

16 with♥DunSan 희망을 나눕시다! 후원자 모집
복지관 찾아오시는 길



문산종합사회복지관장
고 내 봉

칭찬으로 상대가 늘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기를~



이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
드는 수만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중에서 가장 돈이 들지 않고 또 강제성이
없으며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원해서 어떤 일을 하도
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며, 또
상대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희망가운데 가장 고무적
인 격려수단입니다.

“우리는 왜 하루 한끼의 밥만 걸러도 맥을 못 추면
서 칭찬은 한 달, 아니 평생을 거르며 살아가는가?”

세기의 여배우 마를린 먼로 같은 대스타들을 만들
어냈던 브로드웨이의 연극제작자 지그펠드가 한말입
니다. 그는 당시 진흙 속에서 연꽃을 건져 올리듯 초
라하고 불품없던 여성들을 캐스팅하여 세계적인 스타
로 만들어 낸 위대한 스타제조기였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간 소녀들이 무대에 서기만 하며 신
비스러운 매력을 지닌 여인으로 돌변했던 가장 커다
란 힘은 바로 칭찬을 통해 자신감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라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소중한 존재로 인
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의 사회생활에서는 정반대의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
지며 그에 따라 사람들의 사기는 계속 저하 됩니다.

또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누구
나 동의하지만 정작 자기 주변의 사람이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포식자인 범고래의 행동
이 잘했을 때는 과도하게 칭찬을 해줌으로써 고래로
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하
고,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는 외면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일에 대해 관심을 집
중하는 것과는 달리 이 책은 잘못된 일에 쓰인 에너
지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
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로 눈을 돌려보면 회사와 가정에서 부하

직원이나 아이들이 어떤 일을 잘하고 있을 때 그 잘
한 일에 관심을 갖는 상사나 부모는 드뭅니다. 상사
나 부모나 부하직원이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순
간은 무언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가 대부분
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없거나 잘하고 있을 때 대부
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실제 살
아가는 현실은 ‘긍정적인 것에 대한 관심’ 과는 너무
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캔 블랜차드’는 긍정적인 것
에 관심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내가 칭
찬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눈에는 아무리 나쁜 일만 저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칭찬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
니다. 에모토 마사루는 ‘물은 알고 있다’ 라는 책에
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세 개의 유
리병에 밥을 넣고, 한 병을 향해서는 ‘고맙습니다’,
다른 한 병을 향해서는 ‘망할 놈’ 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병에는 그냥 내버려두었다. 무시했던 것이다.
그렇게 한 달을 계속했을 때, 밥에 어떤 변화가 일어
나는지 살펴보았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계속해
서 건 밥은 발효한 상태로 누룩처럼 푸근한 향기를
풍겼다. 그에 반해 ‘망할 놈’ 이라는 말을 건 밥보다
무시당한 밥이 더 빨리 썩었다는 것이다. 육을 먹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이 더 큰 상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심을 나타내면 그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생명에게 가장 큰 타격은 무시당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비난보다는 칭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가장 소홀하게 여겨왔
던 칭찬! 아무리 갖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할 돈이 없는 사람이
라 하더라도, 수많은 칭찬의 굶주림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의 칭찬과 격려
를 해줄 수 있다면, 그건 왕후의 밥상을 차려주는 것
보다 더 훌륭한 것입니다.

복지관 사업안내



사랑의 가족만들기

I. 사업의 실시배경

우리 복지관이 위치한 둔산3동에는 수급권자가 455세대가 있으며, 그중 115세대(25,3%)가 노인세대로 파악되었으며, 그중 독거노인세대가 88세대로 노인세대의 76,5%를 차지하고 있다.(서구청, 2009)

2009년 둔산3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주민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정서적지원(의부모, 가족만들기 등)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9년도에 실시되었던 사랑의 손자녀 결연사업에 참가한 독거노인들에게 실시한 욕구&만족도조사에서 응답자의 88,2%가 2010년에도 계속 참가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정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II. 사업목적 및 목표

1. 목적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외로이 노후 생활을 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지역의 학교 학생들과 연결함으로써 독거노인들에게는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로 부터의 소외감을 완화시키고,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노년생활을 직접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인류애의 기본이 되는 이타적 마음을 배우고, 자원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체험하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목표

- 목표1 : 독거노인들에게 정서적 지지망을 연결한다.
- 목표2 :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참 뜻을 알게 한다.
- 목표3 :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정서지원활동을 제공한다.



III.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10년 1월~12월

2. 대상선정 기준 및 인원수

1) 대상자 확보·선정 방법

- 독거노인 : 전년(2009년)도 참가자중 지속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상담을 통한 신규 신청자
- 자원봉사자 : 충남고 학생중 1~2학년 학생으로 참가 신청자(3학년은 수능준비로 제외)

2) 대상자

대 상	참여인원수
독거노인/충남고 학부모 가족	총100명 (독거노인 20명, 충남고 학부모가족 80명)

• 대상선정기준 및 인원

구분	역 할	자 격	활 동	인원
독거노인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와 결연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는 노인	-독거노인세대 -정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노인 -삼천동 지역 노인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와 정기적 만남을 가지며, 복지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20명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에서 독거노인과 결연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학생 및 학부모	-학생 또는 학부모가 자원봉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사전교육 참가한 자 -정기적,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자 -자발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자	-독거노인에게 말벗이 되어주며, -가사지원, 병원·산책·외출 동행자가 되어주며, -복지관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80명

3. 세부사업 내용

사업명	일정	주요내용	세부 추진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	1월	사업계획서 작성	-2010년 사업계획서 작성	
참가자선정	2월	대상자 파악 및 선정	-2009년 대상자 욕구 재확인 -2010년 신규대상자 상담 -욕구가 있는 대상자 선정	
	3월	자원봉사자 파악 및 선정	-2009년 1학년 학생 중 욕구 재확인 -2010년 1학년 학생 중 신청자 파악 -신청자 중 선택	충고학부모모임 총단장 (이미란)
결연식&자원봉사 교육	3월 29일 (예정)	2010년 사랑의 가족만들기 결연식&자원봉사자 교육	-2010년 사랑의 가족만들기 결연식 (결연증서 발급, 사전교육 실시)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 기초교육 실시, 단체사진촬영)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김명수)
손자녀 결연활동	3월~10월	말벗, 가사지원, 병의료원 산책·외출 동행	-말벗되어주기 -가사도와주기 -병의료원·산책·외출 동행하기	*수능시점반영
	8월	봉사활동실적 점검(1)	-3월~8월까지 활동 현황파악	
	9월 중	자원봉사자간담회(1)	-활동실적표 -활동관련 의견나누기 -사랑의 가족 캠프 논의	캠프비 지원 등
	10월 중	사랑의 가족캠프	-외출, 산책, 관람, 점심 등	날짜, 장소미정
	12월	봉사활동실적 점검(2)	-8월~12월까지 현황파악	
	12월	욕구&만족도조사	-2010년 사랑의 손자녀결연사업에 대한 욕구&만족도조사실시	설문지
손자녀결연 활동평가	12월	자원봉사자 간담회(2)	-욕구&만족도조사결과·활동실적보고 -2011년 사랑의 손자녀 결연사업 계획 안내 -기타 의견수렴	설문결과 활동실적서
		최종보고서 작성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활동 자료정리 및 최종보고서 작성	

IV. 기대효과

- 독거노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외출기회제공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 향상시킬 수 있다.
- 자원봉사의 참 뜻을 알게 하며, 지역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0년 희망토산캠페인
행복을 부르는 사소한 습관



● 하나

불행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라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불행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궁지에서 벗어나 마음 편해 지기 위해 즉각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물론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직면해야 하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번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나면 책임을 떠 넘기는 건 좀처럼 떨어버릴 수 없는 습관으로 굳어지게 된다.

● 둘

진심만을 말하라.

상대의 환심을 사면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상대는 늘 기분 좋게 느끼고 당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은 아부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또한 상대를 마음대로 하려는 알박한 술책이거나 무언가를 얻어 내려는 아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칭찬과 아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칭찬은 진심이 뒷받침된 것이다. 따라서 칭찬을 할 때 칭찬 그 자체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면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 것이다

● 셋

똑똑한 척하지 말라 .

똑똑한 척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운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 우선 똑똑한 척 행동하면 자신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부터 고립된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그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지나치게 똑똑하면 이로우게 없는 것이다.

● 넷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감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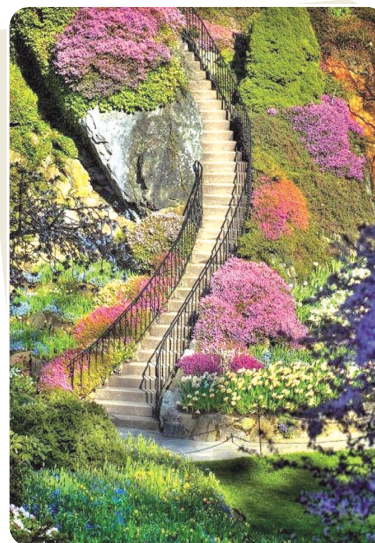
당신 스스로 행운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지금껏 당신이 이룬 것들을 열심히 생각해 보고 그것에 감사해야 한다. 건강, 가정, 가족의 사랑, 자신의 재능과 기술에 고마워한다면, 불행에 괴로워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오는 행운의 분명한 유형을 알게 되고 더 많은 행운을 만드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2010년 희망토산캠페인
행복을 부르는 사소한 습관

● 다섯

단정하게 차려 입어라

단정하고 화려하게 차려 입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유행을 잘 따르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보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다. 단정하게 잘 어울리는 옷차림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당신이 단정하게 매력적으로 차려 입으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 당신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된다.



● 여섯

인내심을 가져라

운 좋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마감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 어느 순간에 페달을 밟지 않고 미끄러져 내려가야 할 지도 잘 알고 있다.

● 일곱

질투심을 반드시 버려라

가장 자기 파괴적인 감정은 질투심이다. 질투를 하면 스스로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적극적인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해서 실수를 하게되고, 결국엔 자신의 운과 기회를 망치게 된다. 질투심이 많아 보이면 당신은 결코 운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운 나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행운에 배 아파하고 인색하게 구는 것이다.

● 일곱

마음을 편히 가져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삶이 뜻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어쩌다 힘든 날일뿐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오늘 너무너무 힘들다면 내일은 더 밝은 날이 기다릴 것이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숨 자고 나서 한발짝 물러나 보면 쉽게 풀리기도 한다 행운은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을 때 찾아온다



사회복지사 실습을 돌아보며



주성대학 사회복지학과
윤영숙

가을이 시작되는 구월 중순부터 시작한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이 한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달에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은 '이해의 계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지나간 나날을 뒤돌아 보고 반추하면서 삶을 이해하는 시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푸르게 높아가는 가을하늘과 기분 좋게 스치는 청량한 바람 때문이었는지 첫날부터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둔산 복지관에 왔을 때 친절하게 맞아주신 수퍼바이저께서 우선 청소를 시작하자고 하였고, 그 말씀은 첫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시작하자는 의미로 생각되었습니다. 아침 청소를 시작할 때마다 마음

에 쌓인 찌꺼기들도 함께 씻어낸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날마다 기분 좋게 실습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현장 실습은 관장님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되었고, 관장님은 진정한 사회복지사로서 사명감을 잃지 말아야 하며 자질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복지관의 5대 영역사업과 각종 프로그램사업, 별도로 운영되는 각 센터의 전문 사회복지사님들께서 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강의를 해 주셨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장감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지역의 클라이언트들 사이에는 이미 라포(Rapport)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각종 행사에 참여 할 때마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재가방문 상담을 할 때마다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겸허한 마음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고, 장애인 나들이에 동행하면서 10년 만에 처음 여행을 하게 되었다며 즐거워하시는 장애인르신의 밝은 표정 속에서 섬김의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멘토링사업으로 진행중인 주말농장을 관리하면서 내가 마치 멘토가 된 것 같은 흐뭇한 느낌이 좋았고, 3대가 함께하는 즐거운 웃놀이에 참여하면서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람차고 감사한 실습시간이었습니다.

지척에 살고 있음에도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복지관을 찾게 된 것이 죄송하기도 했던 실습은 많은 경험과 느낌으로 섬김의 정신을 다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날로그 세대인 내가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할 부분은 우선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키워야 하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상황의 클라이언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 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육 수혜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도와주신 복지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복지관

9월~12월 각 사업별 행사사진

이모저모

가족복지사업

- ① 가족문제해결치료사업
: 수호천사멘토링사업(문화체험)
- ② 가족문제해결치료사업
: 수호천사멘토링사업(주말농장)
- ③ 가족기능보완사업
: 방과후아동보호교실(체험학습)
- ④ 부양가족지원사업 : 장애인외식지원(2차)



지역사회보호사업 & 재가복지사업



- ① 경로식당
- ② 식사배달
- ③ 사랑의 삼계탕 나눔행사
- ④ 전통율치어전달
- ⑤ 손자녀가족캠프

⑥ 자원봉사자간담회





복지관

9월~12월 각 사업별 행사사진 **이모저모**

교육문화사업

- ① 문화복지사업(장애인문화체험)
- ② 아동·청소년기능교육
(하반기 타자정보사냥대회)
- ③ 성인기능교육(리듬짹)
- ④ 어르신여가문화-경로당활성화사업(건강체조)



지역사회조직사업

- ① 사랑의 김장나눔기 축제
- ②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 ③ 서구사회복지관협회 연합행사

- ④ 지역주민대표모임(3차)
- ⑤ 복지관운영위원회(4차)



이동목욕 서비스센터

- ① 건강체크
- ② 이동목욕서비스
- ③ 자원봉사자간담회



둔산노인복지센터

- ① 예능활동(서예)
- ② 웃음치료
- ③ 원예치료(화초가꾸기)

- ④ 작업치료(테트리스)
- ⑤ 적응훈련(2010세계대백제전)
- ⑥ 종이접기(칠교모양접기)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 ① 장애아동 건강교실 특별활동
(교통문화센터 체험)
- ② 장애아동 건강교실 특별활동
(농촌체험학습-감따기)
- ③ 생일잔치
- ④ 적응훈련(뮤지컬관람-왕자와 거지)

사랑나누미 - 자원봉사자 명단

(9월 - 12월)

♥ 가족복지

방과후아동보호교실

이향현, 김홍근, 윤영숙, 김묘석, 민지숙, 유경식, 설명숙, 임종보

청소년열린교실

김은지, 최성연, 우수민, 정이찬, 심옥기, 윤주동, 김영은, 여수자, 임나현, 김수옥, 송지은, 박수인, 김나은, 이예성, 서원희, 김래한, 채욱, 양희준

수호천사 멘토링

이영미, 박미영, 김정구, 박봉석, 윤찬영, 이범준, 이상목, 김시인, 최시운, 김태완, 김홍근, 박성아, 김봉호, 복서란, 반희정, 이미대, 오혜진, 서원근, 김현우

♥ 지역사회보조

식사배달

일반 : 이화은, 한순자, 최영순, 박준영, 김종숙, 윤선민, 이예진, 이득자, 김지윤, 조선숙, 김기옥, 한천금, 이필례, 김나연, 이예은, 임하은, 김혜숙, 안병주, 신재환, 박진주, 김현규, 김순이, 박병준, 안영순

대학생봉사자 : 권혜영, 이미행, 원혜진, 권미영, 장경신, 이선미, 조은영, 권혜영, 김혜수, 이보람, 박보미, 박명주, 김민경, 민경도, 이영범, 이현규, 김혜정, 양종희, 최소리, 김혜정, 권혜영, 유우현, 장영희, 이아름

중소기업청 : 유우현, 김용철, 강기삼, 손희찬, 오성태, 편장범, 고주현, 김중대, 오재순, 이상효, 임상규, 오성진, 김창수, 이왕재, 마재인, 홍명기, 김수연, 김주란, 김영철, 오성태, 송수현, 최명순, 이지훈, 박지환, 서혜민, 최나연, 서효원

SK텔레콤 : 이수정, 이재학, 강현춘, 김선경, 박태욱, 김효정, 한중진, 김재범

둔산,탄방동성당 : 김미옥, 오범지, 조경애, 이종희, 현은숙, 채만순, 엄숙희, 이애영, 이병덕, 김명자, 김옥춘, 이종희, 김형륜, 박정순, 이진자, 이영화, 안명화, 임차윤, 권순원, 심안나, 황종희, 박희윤, 조은춘, 하계임, 권미숙, 박희숙, 장영순, 정인영, 황남용, 윤옥환, 황종연, 오범진, 유영신, 하정숙, 정은주, 양미애, 정한영, 김선화, 김채식

경로식당

일반 : 이애영, 김선희, 김순이, 심미, 김희숙

적십자월평1동 : 안홍숙, 오영숙, 임명자, 전문학, 이현숙, 오효석, 박현옥, 김영옥, 손도선, 윤호진, 우미홍, 변선희, 최미자, 김경옥, 이수진

적십자도마2동 : 김승철, 이석자, 신영숙, 정정숙, 송임순, 홍완선, 이경애, 이현숙, 오효석, 전문학, 손도선, 이정희, 채종식, 채종남, 김영옥, 이순열, 최상근, 임옥임, 손옥환, 채복례, 오준자

재향군인회 : 이호만, 김혜수, 이혜연, 노춘희, 백승선, 안명자, 김동희, 김희숙, 강현숙, 장봉이, 윤옥희, 유윤희, 이희원, 송영순, 백승희, 정영순, 김주원, 홍성원, 김복순, 김지원, 엄태순, 임동애, 윤호식, 임혜진, 홍전기, 박기순, 김광임, 김경옥, 백승선

참사랑 : 정정호, 서연식, 이춘연, 김광자, 임영순, 정점한, 이재운, 김영숙, 여갑순, 정정호, 배용자, 이춘우, 이재륜

♥ 지역사회조직

이애영, 김혜수, 김희숙, 신영숙, 유영선, 정정한, 주영심, 한기복, 신화자, 안홍수

♥ 교육문화

김영수, 곽우희, 문영삼, 이창록, 진용운

♥ 재가복지봉사센터

가사서비스

한라공조(주) : 김형호, 박정민, 장영훈, 김경수, 김영대, 김용진, 배상수, 박명호, 김철균, 문인주, 김재석, 주명기, 황병호, 이요숙, 변성균, 조규봉, 이나라, 김지수, 한기백, 김기묵, 성호석, 김현희, 이한복, 박영곤, 홍윤표, 강정식, 전민수, 박성용, 전동재, 이승근, 유동현, 임창규, 정재원, 한선영, 박노천, 이강용, 박용진, 박성훈, 최영주, 김정희, 이재중, 이혜빈, 이지민, 전기열, 노영완, 하정호, 하상욱, 권문근, 오정식, 박상복, 윤대중, 김현선, 이계승

이미용서비스

신화자, 김미자, 한국미용학원

정서서비스

충남고 학생, 학부모(이미란 총단장 외 135명)

♥ 이동목욕서비스센터

강태평, 전계영, 박상득, 조재현, 이명건, 정명숙, 김영재, 권지연, 강수연, 안재국, 김경인, 연소라

♥ 장애아동방과후교실

이규영, 이원숙, 이은미, 이영경, 문소연

♥ 둔산노인복지센터

김광자, 김영범, 김윤숙, 박순동, 손대철, 송희성, 양길순, 윤광철, 이두길, 이미정, 이석자, 이순자, 이훈래, 허재호, 정다운, 이미용, 봉사팀(유복환, 이경화, 차인숙), 웨미리사우나(둔산동)

※ 이번호에 누락되신 분은 연락주시면 다음호에 기재하겠습니다.

※ 자원봉사관련문의 : 김기현 과장(T. 482-2032)

희망나누미 - 후원자 명단

(9월 - 12월)

♥ 기금 후원자

강계수	강규하	강난숙	강소심
강의진(박순례)	강현구	경기수	고옥주
고내봉	고성학	고연석	곽효경
공영숙	곽병전	곽신엽	권혁환
권기중	권부남	권주영	김강진
길경덕	길경자	김관태	김광진
김경란	김기현	김광열	김다솜
김기론	김남수	김남준	김두섭
김도연	김동인	김동철	김미영
김명화	김명화	김미숙	김병교
김민영	김민희	김배열	김성규
김석정	김선례	김선미	김순일
김세기	김승애	김순의	김영철
김순임	김영진	김영철	김용철
김용준	김용준	김용찬	김은자
김우순	김원구	김원옥	김재희
김을식	김인기	김재홍	김중숙
김정숙	김정일	김중권	김지연
김종철	김종희	김주환	김태규
김지은	김진선	김창근	김현성
김태우	김필순	김한택	김희중
김현자	김혜정	김희숙	남길호
나영희	나혜정	나혜진	노옥선
남세현	노명숙	노영덕	대전지방법원
노재원	노혜연	대한라이온스	류태영
대전고등법원	류순희	류재춘	민선화
도현아	류순희	류재춘	박기숙
문기명	문병택	민미경	박기숙
민태자	박경숙	박계현	박순진
박미옥	박민기	박병곤	박순진
박상희	박성배	박성분	박영숙
박승규	박영구	박영규	박정혜
박윤정	박은배	박정구	박주선
박종각	박종성	박종원	배완식
박진선	박찬성	박형권	백호순
배왕기	백수진	백종기	변창섭
변미란	변예섭	변우정	안혜란
신정원	안연숙	안육환	연규영
양상희	양인동	양정렬	오원혜
오명주	오병배	오우식	유명희
오종수	우윤선	유경분	유승건
유미경	유복순(이정희)	유승건	유지형
유운상	유은경	유지순	윤성중
육정일	윤근모	윤상철	윤진
윤시수	윤재철	윤지연	이경애
윤충원	윤형진	윤혜영	이규춘
이계숙	이광연	이규성	이덕호
이기우	이기화	이대현	이상기
이마트(단체지원)	이명은	이병주	이상진
이미희	이민주	이상옥	
이상옥(장현옥)			

이서관	이석진	이선경	이선영
이선희	이성옥	이성현	이순주
이명숙	이순정	이순화	이영순
이영웅	이옥남	이용희	이유익
이은경	이은배	이은상	이은선
이은희	이정균	이정명	이정열
이정옥	이정임	이주석	이중재
이철현	이희희	이춘화	이춘하
이현강	이혜정(이종태)		이호근
이홍석	이 훈	인미정	인영환
임연희	임미덕	임상수	임성옥
임성철	임연희	임옥경	임재형
임창래	임향옥	임향옥	임형란
산림청(푸른인화)	서광현	서동설	서동설
서원숙	서정환	서정규	성대승
성주미	성지환	성진희	손경은
손원근	송병조	송복순	송옥희
송용철	송재학	송중수	송춘희
송태인	송홍순	신상구	신여정
신현택	심 미	심선보	심정희
장기섭(민정식)	장봉희	장완수	장원수
장인석	장해영	장준환	장중철
전상옥	전종을	정구황	정금분
정병준	정세희	정연권	정영봉
정운숙	정윤식	정은선	정인자
정재준	정종우	정종영	정진철
정철주	정한옥	정한전	정혜숙
조도환	조수희	조 옥	조은정
조익상	조인숙	조인철	조재신
조정숙	조희입	조해규	조혜란
주광석	주영숙	최강옥	최대중
최병욱	최병진	최순자	최영실
최영우	최을순	최창희	최재훈
최정균	최진세	최창현	하정수
한경민	한경자	한광수	한국광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수영
허창수(유지홍)	홍구표		홍석진
홍성희	황선우	황학수	
KTNG복지재단			

♥ 재가복지 결연후원자

강현구	국유희	노혜연
대한라이온스	박홍규	
산림청푸른인화	서두석	
서원원	서일성	송춘희(새빛교회)
우리건축사무소	이재덕	이진규
이춘화	조 옥	최창현(안정원)
의원라이온스		

♥ '사랑의김장나누기축제' 후원자

세울넷, KT&G 서대전지점
이원당한의원(이선미)
장병환 둔산내과의원, 김가네
황토참숯갈비, 대전도시공사
VIP웨딩홀, 미래에셋, 서진원
한국은행 한은나눔회, 한국은행
명진산업, 오원자, 패션월드웨딩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적십자 도마
이재호(고영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천사라이온스클럽, KTCS
둔원라이온스, (주)한화 대전공장
김동영, 천주교탄방동성당
충청체신청, 재향군인여성회
충남고사프론봉사단, 이애영
보라1단지 관리사무소
진병호, 이동균, 둔산자원봉사단
보라2단지부녀회, 청솔아파트부녀회
둔산3동주민센터, (주)대흥종합관리
한신아파트부녀회, 신동아부녀회
국화동성아파트부녀회
둔촌노인복지센터
대전둔산청년회의소
범호개발, 유영선
보라2단지 관리사무소
최건목, 장성혜
청아유통, 둔산3동 복지만들레
신성메디텍

♥ 물품후원자

김해관, 코오롱제약, 현대건설, ktcs,
한국은행 한은나눔회, 송춘정수장,
세천막걸리, 허경애, 시민정육점,
건영제과(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동국제약(주), 한빛사랑나눔회,
둔산자원봉사단, 둔산3동 주민센터,
둔원라이온스, 대전지방검찰청,
KTNG복지재단, 대검찰청, 법무청,
LH대전충남지역본부, 충청체신청,
둔산3동 풍물단, 여유속기다림(임충순)
LG화학기술연구원, 컨츄리식품,
중소기업청, 관세청, 범호개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너지관리공단

※ 이번호에 누락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다음호에 기재하겠습니다.

※ 후원관련문의 : 김기현 과장
(T. 482-2032)

신입직원 인사



사회복지사
송혜림

‘그 청년 바보의사’

안녕하세요.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를 담당하게 된 사회복지사 송혜림입니다.
한 젊은 의사를 소개하려합니다.

그는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명망가나 의료계의 권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의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 중에는 동료 의사와 간호사, 환자, 그리고 그가 다니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고루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제일로 꼽는 것은 그가 ‘참 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환자에게 성실했습니다. 환자에게 성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살이 베일때 아프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베인 것처럼 아파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같이 아파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치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이웃을 위해 내놓고 헌신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살았던 그의 삶의 이야기는 알려지기 시작했고, 얼음처럼 차갑고 각박한 세상에 눈 녹듯 스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의사’ 환자를 너무도 사랑하는 의사였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성실하겠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 한지, 어떤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안테나를 세우고 사랑으로 품고, 재능과 열정으로 헌신하며 ‘참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수정

사회복지사의 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이수정입니다.

복지관에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되어 실수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의 에피소드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배우면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부족한 저는 변하지 않는 사회복지사 초심의 마음으로 무한한 노력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배울것입니다.

높이나는 새가 멀리본다는 격언처럼 꿈을 향해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몰입하여 많은 경험과 따뜻한 마음을 배워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회복지사, 사랑을 전달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 둔산복지관 제2차 추경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분	관 · 항	예산(A)	추경(B)	증,감 (B-A)	구분	관 · 항	예산(A)	추경(B)	증,감 (B-A)
총 계		1,700	30,622	28,922	총 계		1,700	30,622	28,922
보조금수입	소 계	1,700	27,109	25,409	사무비	소 계		5,442	5,442
	사회복지관 운영비		2,406	2,406		기타 운영비		5,442	5,442
	재가복지 운영비		623	623	재산조성비	소 계		1,500	1,500
	기능보강사업비		1,500	1,500		시설비		1,500	1,500
	경로식당급식도우미사업		4,340	4,340	사업비	소 계	1,700	23,680	21,980
	KRA키즈아카데미	1,700	3,400	1,700		가족복지사업	1,700	8,240	6,540
	조리실현대화사업		11,000	11,000		지역사회보호사업		15,440	15,440
후원금수입	소 계		3,513	3,513					
	지정후원금		3,513	3,513					

직원동정



2008년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가족복지와 교육문화사업을 담당하여 훌륭하게 사업을 수행해오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어오던 임연희 사회복지사가 제7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WorkShop을 통해 ‘대전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소감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도 사회복지현장에서 열정을 품고 앞서갈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다짐하는, 당당하고 패기넘치는 임연희 사회복지사의 수상을 둔산희망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축하해주세요.

짧은 글, 긴 여운



장한나가 하버드大 철학과를 선택한 이유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선생이 첼리스트 장한나에게 덕담으로 해준 말입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김치냉장고가 있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김장을 하고 나면 김장독을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독을 한번이라도 물어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묻어야 할 독의 딱 그 크기만큼만 땅을 파진 않습니다. 독의 지름보다는 훨씬 넓게 파야 안전하게 땅에 묻을 수 있는 거지요.

학문을 연구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지식만 취해 공부하는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지식을 넓게 파악 나만의 차별화된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덕담을 들은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뒤 단순한 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 음악이 아닌 철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주어진 길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열린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도전할 줄 아는 장한나와 같은 자유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with ♥ DunSan **희망을 나눕니다!**

후원자 모집 캠페인

결연후원

- 지역의 어려운 이웃(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과 직접 결연하여 매월 1만원 이상 정기적 후원

기금후원

- 어려운 이웃을 위한 프로그램, 행사 등 복지관 사업비 후원

■ CMS 후원

- 매월 일정한 후원금을 CMS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자께서 어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더라도, 매월 자동으로 후원금이 복지관으로 기부되는 편리한 기부시스템입니다.
- ※ 후원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자동이체 후원 (예금주: 둔산종합사회복지관)

- 월 5,000원부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농협 : 453032-51-000737 • 국민은행 : 474-01-0031-241

■ 지로 후원

- 지로번호 : 7622562
- 매월 보내드리는 지로용지 또는 각 금융기관에 비치된 지로용지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후원

-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필품, 의류, 식품 등 후원

- ♣ 보내주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작은 관심과 사랑이 우리 이웃의 큰 힘이 됩니다.

▶ 복지관 찾아오는길

